

창원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수신 검사 김

제목 수사보고(피의자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 확인)

피의자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통신내역

- 피의자 김영선은 2024. 2. 18.부터 2024. 3. 1.까지 김건희 여사와 총 11회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됨

발신자		통화시각일시	수신자		통화시간	상세구분
발신자명	전화번호		수신자명	전화번호		
김건희(X-VOICE)	010-4830-XXXX	2024-02-18(월) 17:02:11	김영선(23.6.17)	010-5763-XXXX	06	국내음성통화 : 용산구한남동722-3번지 은성빌딩 (공주)SKT 옥상철탑(삼각)
김건희(X-VOICE)	010-4830-XXXX	2024-02-18(월) 17:02:49	김영선(23.6.17)	010-5763-XXXX	11:09	국내음성통화 : 용산구한남동722-3번지 은성빌딩 (공주)SKT 옥상철탑(삼각)
김건희(X-VOICE)	010-4830-XXXX	2024-02-18(일) 20:24:18	김영선(23.6.17)	010-5763-XXXX	01:38	국내음성통화 : 용산구한남동722-3번지 은성빌딩 (공주)SKT 옥상철탑(삼각)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2-19(월) 08:31:25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건희(X-VOICE)	010-4830-XXXX	2024-02-20(화) 15:04:08	김영선(23.6.17)	010-5763-XXXX	13:02	국내음성통화 : 용산구한남동722-3번지 은성빌딩 (공주)SKT 옥상철탑(삼각)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2-21(수) 13:23:16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2-21(수) 13:24:27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3-01(금) 11:44:14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3-01(금) 11:51:19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3-01(금) 11:52:05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김영선(23.6.17)	010-5763-XXXX	2024-03-01(금) 11:53:01	김건희(X-VOICE)	010-4830-XXXX	0	문자(채팅) : YM01

- 피의자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4회에 걸친 통화는 모두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김영선에게 발신한 것으로, 2024. 2. 18. 17:02경 6초 및 11분 9초, 같은 날 20:24경 1분 38초, 2024. 2. 20. 15:04경 13분 2초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됨

□ 피의자 김영선의 2024. 2. 18. 김해갑 출마선언 언론보도 및 보도 경위

- 위 2024. 2. 18.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하여 언론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시기로, 특히 피의자 김영선이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에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갑에 출마하기로 정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날인 것으로 확인됨

<p>뉴스경남</p> <p>[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 갑 출마 선언</p> <p>6선으로 김해선 정철의창구 국회의원인, 동선당리와 온석동 정국의 성공을 위하여 '선정주사'가정국은 각으로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 두리의 힘과 온석동 대를정으로부터</p> <p>2024. 2. 18.</p> <p>뉴스경남</p> <p>창원 의창 김영선 의원, 낙동강 벨트 '김해 갑' 출마 선언</p> <p>강남지역 유일의 여성 국회의원이자 초다선인 6선 국회의원 정철 의창 김영선 의원이 '김해 갑'으로 선거구 이동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후 10시 20분 자언의...</p> <p>2024. 2. 19.</p> <p>뉴스경남</p> <p>與 김영선, 김해갑 출마키로... "낙동강벨트 탈환 위해 헌신"</p> <p>(서울=연합뉴스) 자유당 기자=국회의원 6선 김영선(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18일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p> <p>2024. 2. 18.</p>	<p>(서울=연합뉴스) 자유미 기자=국회의원 6선 김영선(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18일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다.</p> <p>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출마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p> <p>그는 15·16·17·18대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6월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초의 여성 5선 의원이자,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타이틀을 갖고 있다.</p> <p>오늘만이 가격! 현물특가 설정 전 구경하세요 + GS SH(K)P</p> <p>김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김해갑 출마로 선회하기로 했다. 김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험지'로 꼽힌다.</p>
<p>2024. 2. 18.경에 보도된 김영선 김해갑 출마 관련 기사</p>	<p>2024. 2. 18. 연합뉴스 기사</p>

- 당시 피의자 김영선의 위 김해갑 출마 선언은 2024. 2. 18. 22:27경 이후 속보로 각종 언론에 공개되었고, 아래 기사에서 확인된 뉴스경남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의자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 보도는 같은 날 21:50경 피의자 명태균의 전화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2024. 9. 23.자 오마이뉴스 「[단독] '김영선 김해갑 출마' 속보기사, 명태균 요청으로 발행」

OhmyNews 오마이뉴스

[단독] '김영선 김해갑 출마' 속보기사, 명태균 요청으로 발행

<뉴스경남> '2월 18일 밤 명씨가 전화로 불러줬다'...김경희 농진개발 의혹 농림부 장관의 일사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뉴스경남

정치·사회 | 문화·스포츠 | 지역·특수 | 교육·인재 | 건강·의료 | 환경·에너지 | 경제·산업 | IT·과학 | 생활·문화

2024. 09. 23. 14:00:00 (수)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 갑 출마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2024. 09. 23. 14:00:00 (수)



-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
- 김해갑 경선에 가까이 참여하겠다
- 5선의 다선의원으로서 당에서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최신뉴스

2024. 09. 23. 14:00:00 (수)

김영선 의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 갑 출마

김영선 의원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며 "김해갑 경선에 가까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선의 다선의원으로서 당에서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변경 출마 사실을 지역언론에 부탁해 기사로 만든 정황이 확인됐다.

올해 2월 18일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출마라는 기사를 보도한 <뉴스경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월 18일) 오후 9시 50분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명태균씨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명씨가 '속보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으로 갑니다, 빨리 기사로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명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바이러언 없이 작성자가 '뉴스경남'으로 발행됐다.

김영선 김해갑 출마 기사화'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다룬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등장한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E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며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리하면, 명씨가 E씨와 통화(오후 9시 38분) 이후 <뉴스경남>에 전화(오후 9시 50분께)를 걸어 기사 작성을 부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위에서 언급된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 사이 2024. 2. 18. 21:38경 통화녹음파일에서도 동일한 내용 확인됨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의 2024. 2. 18. 21:38 전화 통화녹음파일
(파일명: 통화 녹음 1명태균 총괄본부장김영선국회의원_240218_213825.m4a.3gp)

- ▶명태균 여보세요?
- ▶강혜경 네, 본부장님.
- ▶명태균 어, 기사 그 썼어요?
- ▶강혜경 이희철 비서관님이 쓰셔가지고 주셨던데요.
- ▶명태균 쓴 게 아니고 그거 내꺼지. 내가 쓴 거지 그거.
- ▶강혜경 아.
- ▶명태균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기사가 오늘 떠야 돼.
- ▶강혜경 네네, 알겠습니다.
- ▶명태균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 ▶강혜경 알겠습니다.
- ▶명태균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 ▶강혜경 네네.

□ 피의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피의자 김영선의 제22대 총선 공천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 피의자 명태균은 당시 피의자 김영선의 창원 의창구 등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국민의힘 당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텔레그램으로 아래와 같이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됨

김해 갑 봉화마을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상지를 탈환하여 당과 대통령님을 위해 승마를 하려고 했던겁니다.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 경선도 참여하겠다고 가사를 내지만, 경산 출에 당원50%, 시안50%인데 갑출에는 당원을 한명도 가입시키지 못해서 김영선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당원 4800명중 김영선 의원이 가입시킨 당원이 3000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경선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당원 가입이 없는 김태도, 김해에 당원 가입이 없는 조해진에게 단수 공천을 주는 겁니다.

이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김해갑에 출마하면 조운거리 밖에 안됩니다.

경남은 서울과 달리 학연 지연 협연 강합니다.

여사님이 이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3일이면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앉으셔도 됩니다.

또, 김해 갑은 당협위원장이 공식입니다.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다 아시는분을 압니다.

단수공천 주면 나역사 중용

기본전략은 경선이 되어야하고, 지금은 김영선의원이 약체후보들부터 만나서 후진해나가는게 답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추정 메시지 1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추정 메시지 2

단수공천하면 3일이면 정리됩니다. 김해는 어찌후보도 민선정교원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승리가 중요합니다.

김해에서 5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운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여사님 저를 귀여보시고도 도리를 아긔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난대선때 제가 몸이 부서지라 대통령님을 도왔습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제가 경선하러한 일은 못하였습니다. 대신 밀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추정 메시지 3

- 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의자 명태균은 제22대 총선 공천 등이 논의되던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김영선의 창원 의창구 공천이 여의치 않자, 김건희 여사의 조언 또는 상의에 따라서 피의자 김영선을 김해갑 경선에 참여하게 하고 언론에 발표를 하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됨

- 이후 피의자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김영선은 김해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경선에 참가하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김해갑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내용이 확인됨

-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전략은 경선'이라면서 사실상 단수 공천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자, 피의자 명태균은 대선 때 일을 언급하며 자기 대신 김영선 의원에게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됨

※ 위 메시지 내용 및 수발신 시각(15:30경)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명태균과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 2024. 2. 18. 17:00경 피의자 김영선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됨

□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 사이 피의자 김영선의 제22대 총선 공천 관련 통화내용

- 피의자 명태균은 2024. 3. 4. 피의자 강혜경으로부터 피의자 김영선 의원 사무실 보좌관 인사에 대한 항의를 받자, 보좌관 인사는 피의자 김영선과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아래와 같이 피의자 김영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인연을 끊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취지로 대화함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의 2024. 3. 4. 19:45 전화 통화녹음파일
(파일명: 통화 녹음 1명태균 총괄본부장김영선국회의원_240304_194519.m4a.3gp)

- ▶명태균 아니 강 국장. 내가 대화를 안 하려는 게 김영선이는 원래 컷오프라고 3개월 전에 내가 눈치를 찻어요.그래서 내가.
- ▶강혜경 저도 익히 알고 있었고요. 본부장님.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중략)
- ▶명태균 아니 그것도 김영선이 하고 해. 나는 거기 원래 사무실 안에 어떤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잖아. 나는 관여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다 나를 걸고 넘어서

내 대통령 여사하고 끊었어 인연을. 김영선 때문에. 누가 김영선 때문에 그거 끊겠어.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하겠어. 여사하고 대통령. 어디 공기업을 가든 뭘 하든. 여사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김영선 안 주면 난 다 필요 없다고. 김영선이 더 잘 알아.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나는 그 사무실 사람들이 성향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그거 한 거 없어.

(중략)

- ▶ 명태균 강국장. 그거는 김영선 의원하고 하라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김영선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거 아니야.
- ▶ 강혜경 알고 있습니다
- ▶ 명태균 그래. 그 김영선 때문에 누가 김영선을 선택해서 대통령 여사를 선택하겠어. 난 모든 걸 다 버렸어. 근데 이런 거 갖고 나한테 지금 와서. 나는 그래서 아예 김영선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기 때문에 사무실 관계는 나한테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이호련이하고 정리하려고 했던 거는 딴 게 아니라 그러면 김해 만약에 김해 그때 내 말대로 3개월 전에 갔으면은 영웅이야. 김영선이는 김태호하고 그거 다 내가 짠 거야. 근데 김영선이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서병수나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김영선이가 끝까지 기부한 거야.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뭐 어찌고. 지금은 김해 가면 못 가 갖고 난리쳤잖아. 그러면 김해갑에 가면 누가 도와주니. 보좌관 자리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홍태영 옆에 장동 개가 보좌관 주지 가면 자기가 모든, 모든 조직을 싹 다 해 주겠다. 시장 조직을. 내가 그런 얘기 해야 돼? 강성동이 도섭이는 이야기 안 하나. 도섭이한테 물어봐.

□ 결론

- 위와 같은 피의자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 선언 경위, 피의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 사이 통화 녹음파일 내용, 피의자 김영선의 김해갑 출마 선언 보도, 피의자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 사이 통신내역 등에 의하면,
- 피의자 명태균은 2024년 4월에 실시된 제22대 총선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를 통하여 피의자 김영선의 창원시 의창구 공천 개입을 시도하였나 여의치 않아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 여사의 조언 또는 상의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 김영선의 경선 참여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 급하게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을 시도 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됨

첨 부 : 1. 2024. 9. 23.자 오마이뉴 「[단독] '김영선 김해갑 출마' 속보기사,
명태균 요청으로 발행」 1부. 끝.

2024. 11. 10.

위 보고자

검찰주사보

박

[단독] '김영선 김해갑 출마' 속보 기사, 명태균 요청으로 발행

<뉴스경남> "2월 18일 밤 명씨가 전화로 불러줬다"...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내용과 유사

24.09.23 13:49 | 최종 업데이트 24.09.23 13:57 | 김지현(diediedie)

로그인 | 회원가입 | 모바일

2024-09-23 10:23 (수)

뉴스경남

전체기사 종합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지방자치 기획/특집 여론/오피니언 우리이웃 선문보가

주요 | 정치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출마

4 뉴스경남 | 2024.02.18 22:27 | 수정 2024.02.18 22:33 | 댓글 10

이웃 | 가가

-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
- 김해갑 경선에 기여여 참여하겠다
- 5선의 다선의원으로서 당에서 원하던 무엇이든지 하겠다



▲ 2024년 2월 18일 오후 10시 27분에 게재된 <뉴스경남>의 '김영선 김해갑 출마' 기사. © 뉴스경남 갈무리

최신뉴스

- 콜트 특검팀 시제(2024.9.24)
- 발상경찰서, 추석연휴 119 응급출동속 임시
- 경남도, 퇴원시간 '역대 최고' 강수할수도 인정...
- 진주대공예연구소, 문화 4관거 교육프로그램 수...
- 진주시 교육청비호조 산하유년회 위촉서 및 퇴직...

포토뉴스



한양경찰서, 추석연휴 119 응급출동속

인기뉴스

- 1 양산시 삼성동, 추석명절 맞아 경로당 어르신



관련사진보기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변경 출마 사실을 지역언론에 부탁해 기사로 만든 정황이 확인됐다.

올해 2월 18일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출마'라는 기사를 보도한 <뉴스경남>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월 18일) 오후 9시 50분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명태균씨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당신이 속보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으로 갑니다, 빨리 기사로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는 명씨의 음성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바이라인 없이 작성자가 '뉴스경남'으로 발행됐다.

'김영선 김해갑 출마 기사화'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다룬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등장한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E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며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리하면, 명씨가 E씨와 통화(오후 9시 38분) 이후 <뉴스경남>에 전화(오후 9시 50분께)를 걸어 기사 작성을 부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경남> "해당 보도, 명태균씨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월 18일 오후 10시 27분 <뉴스경남> 보도를 시작으로 오후 10시 35분 <연합뉴스>, 오후 11시 <경향신문>에서 '김영선 김해갑 출마' 기사가 나왔다. <경향신문> 기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작성됐는데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1분에 페이스북 등에 김해갑 출마 사실을 알렸다.



▲ 2013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행사에 참석 중인 명태균씨.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은 <뉴스경남> 기사 댓글이다. 해당 기사에는 10개의 댓글이 달렸는

데 차OO씨는 기사가 나가고 몇새 뒤인 2월 24일 "명박사가 책임져라. 대통령책사라면서
머하는기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댓글의 맥락상 '명박사'는 명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명태균씨 실명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
는데 일명 명 박사라고 보통 불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언론보도를 요청한 사실을 명씨에게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
락이 닿지 않았다.

Copyright © OhmyNews. All rights reserved.